

“여자축구 우승 놓쳤지만 선수들 자랑스럽다”



여자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콜린 벨 감독, 아시아컵 준우승에 아쉬움 1991년 첫 출전 이후 최고 성적... “정신력 키워야”

콜린 벨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아컵 첫 우승 문턱에서 패배한데 큰 아쉬움을 전했다. 그래도 “선수들은 자랑스럽다”며 위로했다.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인도 나비 콰바이의 DY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전반 최유리(현대제철)의 선제골과 지소연(셀시)의 페널티킥에 힘입어 2-0으로 앞서지만 후반에 내리 3골을 내주며 2-3-

로 역전패를 당했다. 중국의 강한 뒷심에 밀려 2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한국은 1991년 아시안컵 첫 출전 이후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03년 태국대회에서 기록한 3위다. 전반에 기록한 2골을 지키지 못한 게 큰 아쉬움을 남긴다.

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팀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성장했다”면서도 “정신적으

로 더 강해져야 한다. 흐름이 바뀐 순간에 더 강해져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경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력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선수들이 개선하고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며 “그렇게 해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반에 2-0으로 앞서며 역사적인 첫 우승이 보이는 듯 했다.

벨 감독은 “(하프타임에) 중국을 경합했기에 그 경합을 이용하라고 했다”며 “침착해야 한다. 프리킥을 3-4차례 주고 페널티킥이 나왔다. 화를 자초한 것이다. 앞으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첫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벨 감독은 “월드컵에 대한 생각보다 며칠 동안 오늘의 패배가 생각날 것 같다”며 큰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반에 개개인의 실수가 나왔다. 프리킥을 너무 많이 줬다. 페널티킥까지 줬다”며 “그때까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긴장한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최근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벨호의 아름다운 도전은 우승 못지않은 값진 준우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스카티데일리/뉴스스

위안부 피해자 휴먼다큐영화 ‘보드랍게’ 23일 개봉

우석대 박문철 교수 연출

우석대학교는 박문철(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연출한 휴먼 다큐멘터리 ‘보드랍게’가 오는 23일 전국 30여개 극장을 통해 개봉한다고 7일 밝혔다.

박문철 교수와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제작하고 ㈜인디플러그가 배급하는 영화 ‘보드랍게’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악 할머니의 전쟁 같은 삶을 말하고 그림으로 이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냈다.

또 기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작품들을 경유해 더욱더 새로운 시선과 얼굴, 질문을 던지며 관객 저마다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이번 영화는 ‘마이 플레이스’(2014년)와 ‘파란나비효과’(2016년)에 이은 박문철 교수의 3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과 제12회



우석대학교는 박문철(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연출한 휴먼 다큐멘터리 ‘보드랍게’가 오는 23일 전국 30여개 극장을 통해 개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석대학교는 박문철(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연출한 휴먼 다큐멘터리 ‘보드랍게’가 오는 23일 전국 30여개 극장을 통해 개봉한다고 7일 밝혔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름다운 기러기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해방 후 수십년간 침묵을 강요당하

며 삶이 곧 전쟁이었던 시간을 조명, 일본의 책임을 물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못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고 있다.

나아가 주인공 김씨의 삶을 입체적이고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을 택해 과거의 여성 김순악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성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으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위안부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면서 “김순악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영화는 보기 힘들다고 지레 생각하기 쉽지만, 김순악 할머니의 매력에 푹 빠져들다 보면 웃음과 감동, 더 나아가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우석대에 부임한 박문철 교수는 영상 제작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호흡하고, 학교 밖에선 주목받는 영화감독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임성한의 ‘결사곡’ 시즌3 배우 전면 교체



결혼작사 이혼작곡 3원쪽부터 강신호·지영산·이혜숙.

지담 미디어

26일 오후 9시 첫방

임성한 작가가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3로 돌아온다. 7일 TV조선은 필명 ‘피비(Phoebe)’로 활동하는 임성한 작가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3가 2월 말부터 방송된다고 밝혔다.

시즌 3에서 성훈, 이태곤, 김보연이 하차하고 이들의 자리를 강신호, 지영산, 이혜숙이 각각 맡는다.

판사현 역을 맡게된 강신호는 “좋은 작품에 캐스팅되어 매우 기쁘다. 선배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캐릭터를 잘 이어받아 또 다른 매력의 판사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유신 역의 지영산은 “시즌 1, 2 월 월 시청자였는데 이제 피비 작가님의

새로운 ‘신유신’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이다”며 “결사곡’ 오상원 감독의 편안한 말에 시즌 1, 2때 사랑을 많이 받은 신유신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동미 역의 이혜숙은 “김동미 역에 김보연씨가 너무 잘했던 터라 내가 합류함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걱정이었지만 사실이었지만 드라마 속으로 스며들도록 역할에 충실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결사곡’에서 색다른 판사현, 신유신, 김동미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사곡’의 화려 불쏘시개로 활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혼작사 이혼작곡 3’은 26일 오후 9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전설의 유재하 ‘얼라이브’ 시로 복원

한국 팝 발라드의 시조로 통하는 유재하(1962~1987)가 AI로 복원되는 과정이 공개된다.

울랄라세션 임윤택을 AI로 복원하며 역대급 감동을 선사한 티빙 오리지널 ‘얼라

이프’ 측은 7일 유재하 복원 프로젝트가 담긴 3회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1987년 11월 1일, 하늘의 별이 된 비운의 천재 가수 유재하와 그의 노래를 추억하는 동료들의 모습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후배 가수 김재환과 박재정은 “나에게 교과서 같은 음악” “지금까지도 음악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라며 유재하를 기억했다.

얼라이브의 이선우 PD도 “유재하 남의 경우, 생전 모습이나 목소리 등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AI로 복원하기까지 어

려움을 겪었다”며 “‘얼라이브’를 통해 3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유재하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전설로 남은 비운의 천재 가수 유재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 3회는 오는 11일 티빙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